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⁹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뻑뻑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¹⁰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¹¹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¹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¹³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¹⁴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¹⁵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출19:9-15)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조절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자연적 형태와 모양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이해할 뿐, 영적이고 천국적인 것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영적이고 천국적인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들은 그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부해 버릴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3:12) (AC.878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783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출19:9-15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다음과 같습니다.

Truth Divine is not received by anyone unless it has been accommodated to his apprehension, consequently unless it appears in a natural form and shape; for at first human minds apprehend none but earthly and worldly things, and not at all spiritual and heavenly things. Wherefore if spiritual and heavenly things were set forth nakedly, they would be rejected as if they were nothing, according to the Lord's words in John:

If I have told you earthly things, and ye believe not, how shall ye believe, if I told you heavenly things? (John 3:12).

이는 오늘 본문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뻑뻑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에 관한 주석 중 ‘백성들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and

*may also believe in thee to eternity)*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 장막을 쳤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거듭나는 과정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동안 진리의 인도를 받던 상태에서 이제는 선의 인도를 받는 상태로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인도를 받으며 억지로 선을 행하던 단계를 지나 마음속에서 선한 애정이 일어나 그 애정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단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에 따라 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요새처럼 즐길 거리가 많은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진리에 복종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우리 내면에 여러 가지 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유전적이고 기질적인 악들이며, 또는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인해 고착된 악들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악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악들과 분리가 됩니다. 주님

‘여호와와 강림을 위한 준비’

께서 우리에게 선을 보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때이며, 그때 우리는 선 안으로 들어갑니다. 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에 선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습관을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전에는 즐겁던 일들이 이젠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에는 하기 어려웠던 일들, 이를테면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에 대한 애정의 인도를 받으며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자주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시행착오인데요, 그러면서 점점 아, 이런 건 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선한 애정은 있는데 참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상태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

하시는 것은 선만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진리, 참된 진리를 내려보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9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마음속 시내 산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⁹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뽕뽕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먼저 주님은 왜 그냥 구름도 아니고 ‘뽕뽕한 구름 가운데서’ 오실까요? 여기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고, 말씀의 겉글자의 뜻을 말합니다. 구름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의미하는 까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진리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순수한 진리에 비하면 아주 거칠고 어두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빛을 가리는 것처럼 말씀의 글자의 뜻은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깊은 경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씀의 글자의 뜻을 구름에 비유하고, 그것도 그냥 구름이 아니라 뽀뽀한 구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의 글자의 뜻 가운데로 오셔서 순수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글자의 의미 이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글자 안에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고 깊은 진리, 천국 천사들이 이해하는 참 진리로까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신적 진리는 여러 등급, 단계가 있으며, 가장 낮은 여섯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지상 언어로 표현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AC.8443번 글에 나오는 관련 내용입니다.

신적 진리(*Truth Divine*)는 하나가 아닌 많은 단계(*degree*),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진리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이며, 이는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가장 내적, 혹은 삼층천 진리 같은 것인데, 이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중간, 혹은 이층천 진리 같은 것으로서 이 역시 사람한테는 지각조차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진리는 가장 외적, 혹은 일층천 진리 같은 것으로서 이 정도는 내면이 열린(*enlightened*)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지각은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대부분은 사람의 언어 가지는 표현조차 할 수 없으며, 대신 머릿속 무슨 생각으로 떠오르면 지각,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 있는, 즉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감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사람들의 진리 같은, 비로소 사람이 지각할 수 있는 진리, 그래서 말씀의 겉 글자의 뜻이 된 진리입니다. 이 뜻, 즉 이 진리가 바로 구름(*the cloud*)이 표상하는 바이며, 이 진리의 속뜻이 바로 구름 속 영광(*the glor*

y in the cloud)이 표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왜 여호와(곧 주님)께서 종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셨는지 하는 이유입니다. (* 출 24:15, 16; 40:34, 35; 왕상8:10, 11; 마24:30; 기타 구절들)

Truth Divine is not of one degree, but of many. Truth Divine in the first degree, and also in the second, is that which proceeds immediately from the Lord; this is above the angelic understanding. But truth Divine in the third degree is such as is in the inmost or third heaven; this is such that it cannot in the least be apprehended by man. Truth Divine in the fourth degree is such as is in the middle or second heaven; neither is this intelligible to man. But truth Divine in the fifth degree is such as is in the ultimate or first heaven; this can be perceived in some small measure by man provided he is enlightened; but still it is such that a great part of it cannot be expressed by human words; and when it falls into the id

eas, it produces the faculty of perceiving and also of believing that the case is so. But truth Divine in the sixth degree is such as is with man, accommodated to his perception; thus it is the sense of the letter of the Word. This sense, or this truth, is represented by the cloud, and the interior truths are represented by the glory in the cloud. This is the reason why Jehovah (that is, the Lord) so often appeared to Moses and to the sons of Israel in a cloud (see Exod. 24:15, 16; 40:34, 35; 1 Kings 8:10, 11; Matt.24:30; and other places).

이는 오늘 본문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뵈는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에 관한 주석 중 ‘내가 뵈는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and behold the glory of Jehovah was seen in the clouds.)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출19:9-15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여시고 천국 빛을 비추셔야만 그 빛을 통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내 산에 오십니다. 9절에서는 주님께서 오시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진리를 통해 주시는 계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는 모세이며, 모세는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듣게 한다는 말은 주님의 계시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저는 TV에서 다른 종교의 프로그램을 봅니다. 예를 들면 불교 프로그램도 보고요, 요즘에는 증산도 프로그램도 봅니다. 증산도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는 새 교회 진리와 가까운 것이 꽤 있다 느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 방송 내용 중

에는 대강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금강경 내용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리를 모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모호하게 알려주시고 그것에 따라 살라 하신다면 주님을 어찌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를 쪼개고 쪼개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해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이 말씀은 말씀의 신성한 부분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이해하게끔 만드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믿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그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해한 진리를 삶의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강림을 위한 준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믿음과 삶, 즉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를 분리합니다. 즉 믿음 따로, 생활 따로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바탕에는 반드시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주님의 계명을 이해하기만 해서 안 되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구름 속에 강림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그 두 가지로 명백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¹⁰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하게 하라’ 하시고, ‘옷을 빨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의 내면에 여호와와 강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악들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유전악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그렇고 교우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그 악들을 대면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악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행동들을 돌아봅니다. 그때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악과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들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 악들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악들을 멀리하려는 노력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러다

출19:9-15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보면 악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빨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옷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선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 또는 행위, 또는 사랑이나 선을 담은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진리를 보통 옷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옷을 빨게 하라는 것은 진리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 속에 섞여 있는 거짓들을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짓들이 섞여 있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서 배운 교리의 지식이나 삶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념으로 삼는 이유는, 그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애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약 진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성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신앙하는 진리는 그렇게 순수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 애정이 주님과 이웃 및 주님의 나라를 위한 애정이라면 그의 진리는 순수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가 순수한 것인지를 계속 살피라 하시고, 그 속에 거짓이 있다면 씻어내라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옷을 빨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11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1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라**’ 하시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말씀 하십니다.

준비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강림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을 위한 준비를 완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셋째 날의 삼(3)이란 숫자는 완전한 걸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주님을 맞는 준비는 어떤 겁니까? 앞 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며 ‘옷을 빼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도와 동기 가운데 있는 악들을 털어내는 일이고, 생각 속에 있는 거짓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가 완전히 끝나는 때가 ‘셋째 날’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시내 산’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시내 광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선을 뜻하는데 아직 진리가 없는 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선 가운데로 오셔서 그곳에 진리를 심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주님이 ‘온 백성의 목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의 목전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눈앞에 오신다는 뜻인데요, 말씀에서 눈은 어떤 의미입니까? 눈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나타냅니다. 새 교회 분들은 이해

성(理解性)이라고도 하시는데 그것이 눈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시내 산에 오시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깨우쳐야만 진리가 ‘내면의 선’ 가운데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¹²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과 진리를 보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신다고 하니까 주께서 우리 내면에 직접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을까요? 법계를 만진 사람조차도 죽

출19:9-15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직접 모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천국의 사회들, 공동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과 진리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통해 천국의 어떤 사회들과 연결이 되고 그 사회들로부터 선과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자기의 선과 진리의 양과 질에 따라 거기에 맞는 천국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천국과 연결이 되고,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보다 높은 천국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진리와 선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천국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질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오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에는 삼층천과 이층천, 그리고 일층천이 있는데, 삼층 천국의 천사가 이층 천국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층 천국의 천사가 삼층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삼층 천국의 진리의 밝기와 선의 열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단계의 천국과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계를 침범하고 산을 침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진리와 선을 원하는 것이 경계를 침범하고 산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수준보다 높은 천국에 연결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8797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낮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 보다 높은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일이 가끔 있다. 그런데 그것은 교만과 지배욕 또는 시기심에서 비롯된 악한 욕망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비밀) 위 8797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Yet it sometimes happens that they who are in a lower heaven seek to ascend into a higher heaven, and this from a vicious desire originating in pride, in the love of dominion, or in envy.

이는 오늘 본문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에 관한 주석 중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Everyone that toucheth the mountain, dying he shall die.*)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중에는 선한 사람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 강하게 선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 선으로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 선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보다 높은 천국과 소

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 8797번 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¹³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3절에서 주님은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시고, 또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무엇입니까? 선과 진리들입니다. 따라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며,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은 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사람을 막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 역시 진리와 선이 모두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에서 ‘짐승’은 우리 내면에 있는 애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선한 애정이고 ‘사

출19:9-15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람’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막론,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한 애정과 진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영적 수준보다 높은 천국과 접촉하는 것은 마치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밝은 빛에 직접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은 눈이 멀거나, 태양 열에 불타 없어져 녹아내리게 됩니다. 영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역량을 넘어서는 높은 천국 빛과 열기와 만나면 지성의 눈이 멀게 되고, 선한 의지 또한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선과 진리를 욕심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 물질이나 명성을 욕망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의 속 사람의 어떠한 따라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선과 진리 자체를 욕망, 즉 더러운 욕심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약기가 나오는데 약기들은 보통 선과 진리에 대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관약기는 선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현약기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선이 흘러들어올 때 그것을 지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선이 흘러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으로부터 나오는 애정에 따라 선을 바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에 맞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으로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애정으로부터 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전에 선 또는 진리를 욕심부리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성문서에는 선은 그 자체로 천국을 향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호와와의 강림을 위한 준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선이 있는 사람은 선의 확장성, 즉 주님과 천국을 향한 선의 확장성으로 인해 보다 높은 천국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선이 우리를 높은 천국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아야 하며, 그래서 그걸 본문에서는 ‘나팔을 길게 불거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선 가운데로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 진리를 심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단계에서 애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로 주님은 오늘 세 가지 덕목을 일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내면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각자의 의도 가운데 악이 있는지를 살펴 그 악을 버리는 것이고요, 옷을 빠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선을 욕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인들이 진리와 선을 욕심내는 것이 무엇이나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영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시기심과 교만, 타인에 대한 지배욕에서 나오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그릇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대로 받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가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도 혹시 욕심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의 깊은 부분을 열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19:9-15

‘여호와와 강림을 위한 준비’

세 번째 덕목은 주님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셋째 날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때는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지각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선을 보내 주실 때 지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보내 주시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선을 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을 지각할 때 우리는 산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천적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천국들 중 가장 높은 천국인 삼층 천국이 바로 산입니다. 그곳은 오직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의 확장성에 의해 높은 천국에까지 저절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을 주실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각자의 내면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11:27)

아멘

원본

2017-02-05(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08(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